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1년을 훌쩍 넘어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위에 주께서 더욱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내외는 지난 3월 19일에 네팔로 복귀하였습니다. 1월부터 월 1회 대한항공 전세기가 뜨기 시작하였고 신학교는 2월 1일부터 37명의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 입사하여 2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백신접종의 차례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많은 분들의 염려를 뒤로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현재 네팔 분들은 코로나 19에 대하여 거의 감기 정도로 생각하며 지내는 듯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먼지와 매연이 심하여 일부 마스크를 착용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의 숫자가 그 때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1일 확진자가 4천 명에 확진율이 25%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했었으나 다행히 현재 100여 명대(확진율 5%)로 진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 뭄바이를 중심으로 2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합쳐진 형태의 바이러스가 급격히 전파되고 있어 인도와 국경을 접한 네팔은 다시 긴장하고 있지요.

네팔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편도로만 발행되는 항공권을 평상시 왕복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에 구매한 뒤 네팔 입국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 재한국네팔대사관을 2회 방문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 결과 음성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2회 방문하였으며 네팔 도착 후 자가격리 장소를 집으로 하기 위한 영문 집세 계약서와 여행자 보험 영문 가입서를 준비한 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된 서류의 정보를 네팔대사관의 홈페이지 양식에 입력하여 바코드를 받는 일까지 참으로 복잡하고 많은 준비를 거쳤습니다.

10개월 만에 귀가한 집은 다시 정착하는 기분처럼 낯설고 어설프지요. 당장 인터넷 연결이 급하여 수 없이 전화한 끝에 3일 만에 개통되었고, 하루에도 5-6시간 씩 전기가 끊어지던 시절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하였던 인버터와 배터리 일체가 드디어 수명을 다하여 교체하였으며, 아내의 휴대전화는 웬일인지 통화가 되지를 알아 수 일 내로 전화국을 방문해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수개월 전에 먼저 입국했던 동료 선교사님께서 공항픽업부터 며칠 동안의 반찬까지 준비해 주심으로 재정착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종려주일 행진



종려주일 행진

신학생 37명과 교수 2가정이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2달째 생활하면서도 집단 감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모두 면역력을 보유한 상태인지 알



세족목요일 세족식

수 없지만 일단 학교 안은 안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외부 강사와 방문객들의 주의를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요. 지난 주 종려주일 행사를 시작으로 세족 목요일에는 은혜 넘치는 세족식을 행하였고 성금요일에는 3학년 학생들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주님의 가상칠언(架上七言)을 한 마디씩 나누어 설교하며 찬양하고 성찬식으로 마치고까지 매년 행하지만 늘 은혜 가득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교 현지에 서만 누릴 수 있는 감동과 은혜이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쳤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네팔 교회가 새벽부터 행진하면서 광장에 모여 장관을 이루며 집회를 갖던 부활절 연합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올해에 생략되었는데 3학년 학생들 13명이 인솔교수와 함께 부활절 아침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도 실습 여행을 떠납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지원해 주신 코로나 특별 선교비를 이 때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크레이션, 그림그리기, 운동회 등 어린이 교육 사역과 마을 개선 사업, 교회 협력 사역 등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에 안전과 네팔 기독교회의 지속적인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저여머시!(승리메시야!)

2021. 4. 5 최희철, 김은영 선교사 올림